



삼성중공업 연타석 호재: PFLNG2 작업 재개 & 취소된 STENA 시추선 매각

코멘터리 대표 차트

삼성중공업에게 두가지 호재가 연속 터집니다.

① 2011년 TransOcean에 시추선들을 매각하며 시장에서 빠졌던 Aker Group은, 삼성중공업이 수주 취소 맞은 Stena semi-sub.를 인수해 RIG 비즈니스에 재진입을 노립니다. 삼성중공업은 \$800m으로 계약한 시추선의 취소에 2억\$ 안팎의 총당금을 쌓았는데, 매각은 \$450m 안팎으로 협상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매각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은 차치하고, 0.5조원에 달하는 현금 유입 및 미청구공사 축소의 호재로 판단합니다.

② 또한 2016년초 작업 정지된 Petronas가 발주한 PFLNG Dua의 작업이 최근 재개되었다고 전합니다. Hull은 2016년 4월 진수되어 안벽에 묶여있는데, 향후 탑사이드 제작과 Integration을 거쳐 2020년 가동될 예정입니다. 호재입니다. 곧 Egina FPSO가 나이지리아로 출항하지만, Mad Dog2, Coral FLNG, PFLNG2의 3개 해양 사업이 동시에 야드에 펼쳐져, 삼성중공업의 해양 야드는 경쟁사들에 비해 풍요롭습니다. 또한 향후 수주 POOL 중 Statoil의 Johan Castberg ph2, Shell의 Vito FPU 경합에서도 우위에 있어, 과거 해양 중심의 삼성중공업의 포트폴리오가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시추선 시장 바닥론이 거셉니다..

③ 윗 단락의 Aker보다 앞서 중국 또는 계약취소 시추선을 사들이기 시작한 Borr Drilling과 Northern Drilling은, 여전히 시장에 인수가 가능한 시추선들을 탐색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 두 회사는, 기존 RIG 플레이어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BEP를 바탕으로 시장 회복의 수혜를 온전히 거둘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④ Transocean의 분석에 따르면, 328개의 부유식 시추선 중 27개만이 고사양 시추선으로 분류되어, 향후 Harsh-environment, Ultra-Deepwater의 수요가 조금만 올라서도 운임이 큰 폭 회복하면서 상황이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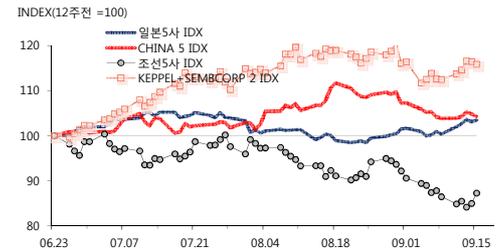
고사양 시추선인 cat-D 4기를 보유한 Songa Offshore를 4분기 인수 마무리하면 Transocean은 55기의 선단을 보유한 최고 시추 업체의 자리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상반기 탱커 발주 싸이클이 지나가고 있고 하반기는 VLOC가 그 공백을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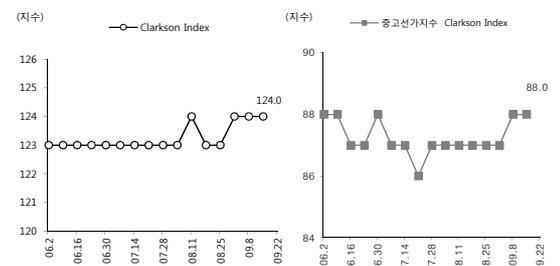
⑤ VALE의 노후개조선 교체를 위한 COA 발주 30척의 7개 선사가 정해졌습니다. 이중 한국 선사는 Polaris, 팬오션, H-Line, SK해운, 대한해운이며 각각 7척, 4척, 2척, 2척, 2척으로 17척을 따냈습니다. VLOC를 건조가능한 현대중공업과 중국 야드들의 경합 구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다수 VLOC 수주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⑥ 현대미포조선은 DSD의 옵션행사로 MR탱커 2척을 추가 수주합니다. 다만 비나신의 Tier II 슬롯이어서, 신조선가는 여전히 \$32m입니다. 향후 울산 야드의 Tier III 수주 및 그 계약에서 신조선가 인상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튼튼한 재무구조에, 8월까지 20억\$를 수주해 전혀 문제 없는 현대미포조선이지만 하반기 감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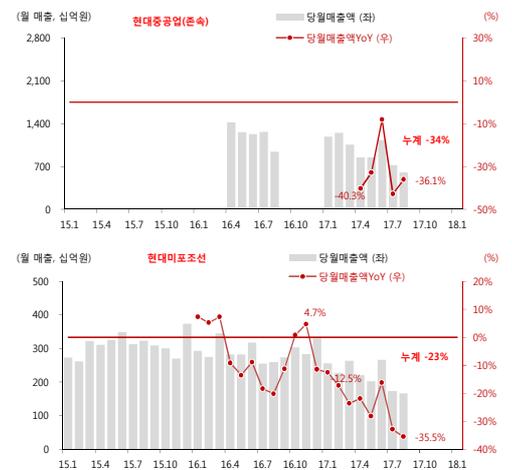
▶ 한/중/일/싱 추가 추세: 한국 언더퍼폼



▶ 신조선가지수 & 중고선가지수: 보합



▶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월매출: 미포 하반기 YoY -45% 예상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삼성중공업: 연타석 호재

- ▲ 삼성중공업에 HOLD 중인 Petronas의 PFLNG Dua, 작업 재개!
- ▲ Aker, 삼성중공업의 취소 stena semi-sub. 인수 시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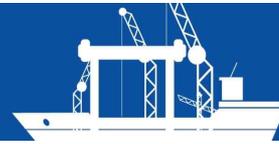
△ 상선 호재와 다소 악재의 교차

- ▲ Vale 30척의 VLOC 선대 교체할 7개 선사 선정 완료
- ▽ Total, LNG 신조 결정 4개월 연기
- △ DSD → 현대미포조선: MR탱커 옵션행사로 2척 추가 발주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와 중고선가지수 모두 보합

- 신조선가는 전선종 보합을 유지했고 지수도 124p 제자리를 유지
- 중고선가는 파나마식 벌크선이 상승했지만 여타 선형과 선종들 제자리로 지수도 88p 보합



△ 일본 조선, 엔화 강세로 신조선가 인상 시도

- 최근 북한 리스크 등으로 엔화 강세가 진행되었고
- 이에 따라 일본 조선업은 신조선가 인상을 도모
- 최근 62k 벌크선의 경우 \$23m에서 \$21m까지 지난 3개월간 하락했지만 최근 일본 조선사는 \$25m까지 인상에서 협상 중
- 일본 조선사들의 백로그는 2019년까지 차있고, 일부 Oshima 조선 등은 2020년까지 채워, 2021년 인도물을 영업 중
- >> 벌크를 중심으로 신조선가 인상이 나타나고,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겠지만,
- >> 탱커, 컨테이너선과 가스선의 신조선가 상승이 확인되어야 한국 조선업의 선가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삼성중공업에 HOLD 중인 Petronas의 PFLNG Dua, 작업 재개!

- Petronas의 2번째 FLNG인 PFLNG2(dua로도 호칭)는 2016년초, Petronas의 Restructuring 과정에서 작업 정지되었고, 건조 중인 Hull은 2016년4월 진수되어 안벽에 고정
- 최근 PFLNG2의 탑사이드 작업이 삼성중공업 야드에서 재개되었고 2020년 인도가 목표 : Petronas 대변인도 확인
- 한편 Mooring system은 Sofec(Modec의 자회사) 관리하에 MMHE에서 제작이 역시 재개
- DSME와 SHI와 각각 제작했고 제작 중인 FLNG는 각각 1.5MTPA, 2.0MTPA에 500미터~1,500미터 해역에서 작업

(16년5월2주) > Petronas의 PFLNG2 Hull, 삼성중공업에서 진수

- 393m Hull이 Green Dock3에서 진수되어 안벽으로 이동: 2015년6월 작업 시작
- > PFLNG2는 이미 알려진 대로 2년 인도 연기키로 했음: Hull 작업을 마치고 안벽에 묶어두는 것을 해석됨

(16년3월1주) Petronas Restructuring 계획 발표에서, PFLNG2호선 작업 정지 확정

- 5,100명의 임직원 중 1,000명 가까이를 해고를 포함한 500억 ringgit 비용절감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 PLNG2호선도 연기 확정: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Penalty, 조정 일정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음

▽ 삼성중공업 등, SK해운 KC-1 탱커 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http://lnr.li/hUJkY>

삼성중공업은 국산 LNG저장탱크 기술을 적용한 17만4000m³급 LNG선 두 척에 대한 인도를 연기해달라고 지난달 화주인 한국가스공사와 발주사인 SK해운 측에 요청
 지난달 말 인도할 예정이던 'SK세레나티'호는 내년 2월로, 이달 말 인도 예정인 'SK스피카'호는 내년 3월로 6개월씩 늦춰달라는 것
 국내 조선사가 세계 LNG선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지만 정작 LNG선에 탑재되는 저장탱크는 프랑스 GTT사에 의존: 철당 100억원 로열티
 가스공사와 조선사, 중소협력업체까지 나서 2년여에 걸쳐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처음으로 이를 삼성중공업이 제작하는 선박에 적용하기로 한 것
 멤브레인 설계는 가스공사 자회사인 KC, 제작은 국내 유일의 LNG 멤브레인 업체인 TMC가 맡음: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LNG탱크를 만들다 보니 설계 변경도 잦았음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문제가 불거짐: 가스공사는 인도 지연의 책임을 물어 SK해운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

... 삼성중공업이 물어야 할 보상금액만 230억원, KC와 TMC도 각각 70억원 물게 될 전망

문제는 이로 인해 멤브레인 관련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점: TMC는 자본금 10억원, 연매출 400억원대인 중소기업

KC 역시 모회사 가스공사의 지원이 없으면 파산이 불가피

최원호 TMC 회장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이 200명 추가로 투입됐고 비용도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들었다"며 ...

... "양산이 4~5개월 늦었다고 지체상금을 물리던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

업계에서는 GTT도 새 멤브레인 개발에 4년 이상 걸렸는데 한국이 2년밖에 안 걸렸는데도 4~5개월 지연됐다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

△ 조선업계 "철강 후판가격 낮춰달라" 호소

<http://lnr.li/37qwm>

14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최근 CMA CGM의 2만2000TEU급 컨테이너선 중국 발주사례와 같이 ...

... 국내 조선사들은 경쟁국들과 치열한 수주경쟁(원가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며

선가 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최근 후판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주장

2017년 상반기 철강3사의 영업이익률은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포스코 7.8% 현대제철 7.6% 동국제강 3.7%

협회는 "국내조선사가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국내 철강사도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오르게 됐다"며 ...

... "조선 철강산업의 공동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 사례는 상상과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점"이라고 말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생산

△ Statoil의 Johan Castberg, Ph1 11월 발주: 5억\$~6억\$

1) 11월1일 Hull과 LQ의 \$500m~\$600m의 phase1을 발주한다는 스케줄 업데이트

- BIG3 + 싱가포르 2개사 중 현대중공업이 가장 유리한 위치라는 평가

- phase1의 Hull과 LQ는 \$500m~\$600m이고, 전체 사업규모는 25억\$~30억\$ 수준으로 짐작되며, Statoil은 26억\$ 예상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Clarification talk를 지났고 FEED 조정을 통해, 수정된 입찰을 8월4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전함

- Statoil은 로컬컨텐츠를 최대화하고자 해, 심지어 phase1의 LQ(Living Quater)의 일부도 로컬 Leirvik이 모듈 제작 가능

- Turret(7,700톤)도 별도로 발주될 예정인데, SBM Offshore, Modec의 Sofec, Bluewater Offshore 등이 경쟁 중

2) Topside(1.8만톤) 제작의 phase2에서는 삼성중공업과 Sembcorp과의 경쟁구도 하에 Aibel, Kraevner 등이 일부 모듈 등의 수주를 노림

- 8월말에 Technical/commercial bid가 제출되었고, 본계약은 내년 2월1일로 잡힘

- 사업 전체의 FID는 2017년말~2018년초, 2022년 가동 예정

(7월2주) △ Johan Castberg FPSO: 업데이트된 FEED 정보 5개 입찰사에 전달

- 한국의 BIG3와 SembCorp, Keppel은 6월15일에 첫번째 입찰을 제출하고 Statoil과 협의 중이었는데

- phase1] 5.7만톤 hull과 1,000톤 LQ 발주는 올해말 또는 내년초로 기대됨

- 전체 프로젝트 25억\$~30억\$인 프로젝트에서 phase1은 \$500m~\$600m: 현대중공업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경합 중

- phase2]의 1.8만톤 탑사이드 입찰은 8월말까지 제출하고 2018년 여름에 제작사를 선정할 예정

- ph2에는 삼성중공업, Sembcorp이 로컬 Kvaerner, Aibel과 경합 중: 로컬 컨텐츠 때문에 로컬 업체 둘이 유리할 것이며, ...

... 삼성중공업과 SembCorp은 프로젝트 금액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해석도 있음

- Aker Solution은 190천b/d FPSO의 상설설계를 진행 중

- phase3] 7,700톤 turret은 SBM Offshore, Modec-Sofec, Bluewater Offshore 등이 경합 중

(5월1주) > Statoil의 Johan Castberg FPSO ph2에서 현대중공업 입찰 제외

(3월1주) ▲ Statoil의 Castberg FPSO ph1 곧 ITB 발송

(1월3주) ▲ Johan Castberg FPSO의 Hull+LQ 패키지 3월초 입찰 시작: BIG3+Jurong 경합



▶ 시추

▲ Aker, 삼성중공업의 취소 stena semi-sub. 인수 시도 중

- 노르웨이 Aker group은 2011년 Transocean에 Aker Drilling을 22.3억\$에 매각한 이후, 다시 Rig-owning 비즈니스 진입을 시도
- 삼성중공업이 인도연기로 계약취소 맞은 CS60-design의 stena MidMax semi-submersible을 매입 협상 중
- 한때 Aker가 삼성중공업과 신조를 상의 중이라는 설이 있었지만, 결국 취소 Rig 매입 협상이었던 것
- 해당 시추선은 2013년 \$800m에 발주되었지만, 현재 \$450m 안팎에 매각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함
- 삼성중공업은 선수금 \$215.4m에 대해 Stena와 소송 중
- 계약 성사가 임박했고, 구입 후 AkerBP의 노르웨이 Barents Sea에서 탐사시추 활동을 할 예정: 구입 후 Odfjell Drilling에 운영 대여할 것이라는 풍문도 있음
- >> 삼성중공업은 계약 취소 시추선에 \$200m 안팎의 충당금을 쌓아두었습니다
- >> \$450m에 매각 시, \$650m 확보로 사업 자체에서는 적자이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던 바이고, 대신 대규모 현금유입은 호재입니다.

▲ Transocean 27개 Rig만이 high-spec.!

- Transocean의 분석에 따르면 전세계 328개 Floater 중 27개만이 high-spec. Rig이라고 함
- 2013년 4월부터 Rig를 전수 조사해, 선형, mud capa, DPS 등에 따라 53개의 카테고리 분류해서 선정
- high-spec.의 기준은 dual-activity, dual BOP, 7 rams, 2.5백만 hook load, DP3-class 등을 의미
-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갭을 많이 언급하지만, 고사양 Rig에서 공급은 절대 부족 상황이라고 수요가 오르면 dayrate도 쉽게 오를 것이라고 분석
- TransOcean은 27개의 고사양 Rig 중 9개를 보유 중
- 2013년 TranOcean은 한 때 82기의 rig를 보유하고 그 중 40%가 Ultra-deepwater 또는 harsh environments였지만
- 불황기에 책임 15기를 모두 매각하고, 33기를 스크랩했음
- 그러나 이번 Songa Offshore 인수가 4Q에 마무리되면 다시 55기의 선대를 보유
- 향후 18개월간 46년의 Rig contract를 보유 중이며
- 향후 북해, 노르웨이해에서 용선 수요가 강할 것으로 기대: 14개 프로젝트, 10 rig year 입찰 중

▲ 싼 시추선 인수 계속 될 것: Borr, Northern 등등

- 미용선 상태이거나, 조선사에 취소된 시추선에 대한 인수가 계속 될 것이라는 분석 보도
- 신규 진입자 Borr Drilling은 17기의 책임 5(7기는 건조 중)를 인수했지만,
- 만족하지 않고, 추가 선대 확보를 위해 계속 다수 업체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힘: 초기 협상이 곧 결론을 낼 건들이 있다고 전함
- Borr Drilling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10억\$의 자본 조달에 성공해 낮은 차입금 구조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경쟁사 대비 50%나 낮은 BEP로써 회복하는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것이라고 자신: 인수 책임의 평균 매입가는 \$107m
- 최근에는 Rig 용대선에서 새로운 계약 모델 제시: performance incentive on drilling efficiency: 20% 지분을 보유한 Schlumberger와의 협업 하에 가능
- Fredriksen이 투자회사 Greenwich Holding를 통해 50% 지분을 보유한 신생 Northern Drilling의 행보도 흥미로움
- Northern은 현대중공업이 (Sadrill로부터) 계약 취소 맞은 반잠수식 시추선을 \$363m에 인수했고, 비슷한 semisub Bollsta Dolphin도 \$400m에 인수가능한 옵션을 보유
- 후속으로 맹렬히 추가 인수건을 탐색 중이라고 설명: 최근 5개의 semi-sub. 인수 후보군을 검토 중이며, 장차 drillship, jack-up에 대한 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함
- 또한 시장 전체에 75개의 Rig, 24개 \$100m~\$2,000m의 잠재 매각 Deal/후보군이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아직 매각물의 가격이 충분히 낮지 않아, 가격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 시추 시장은 바닥을 지나고 있고 향후 2년 간의 시장 회복의 수혜를 기대한다고 언급

▶ LNG & LNG 추진

▽ Total, LNG 신조 결정 4개월 연기

- 4척의 LNG선 용선발주를 진행 중인 Total은 애초 9월초 신조 결정을 11월로 미룸: 6월2일 제안서 제출, 7월 Clarification meeting을 거침
- Total이 프랑스의 French tax lease 활용을 선사들에게 강제화했기 때문: Dayrate는 떨어지고 계약구조는 복잡해지는 귀결, 7년 계약
- 경쟁 구도는 그리스 TMS Cardiff Gas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또다른 소스에 따르면 Gaslog도 우위에 있다는 전언
- 선박 사양은 180k 이하로, 과거 170k~180k 가이드선 수준
- 엔진은 ME-GI 또는 XDF 중 XDF를 조금 더 선호한다는 설명
- Total은 2022년부터 북미 Sabine Pass와 Corpus Christi LNG에서 가스 수입 예정

(8월1주) △ EDF LNG선 보도에 포함된 후속 LNG 프로젝트들

- 다음달 Total의 LNG선 4척 발주 결정

▽ 인도, ExxonMobil과 LNG 장기공급계약 가격 인하 협상 성공

- 인도는 2009년 ExxonMobil의 Gorgon에서 1.5MPTA 물량에 대한 20년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 인도는 또한 카타르에도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중으로 전함
- 그러나 최근의 LNG 가격인하를 빌미로 가거인하를 요구했고 15% 정도의 가격인하에 성공
- 이번 사건은, 철저히 구매자 중심의 시장임을 반증하며, 향후 일본, 한국, 중국 등의 LNG 공급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 >> 또한 추가 LNG 수출 프로젝트들의 feasibility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 Gazprom, LNG선을 FSU로 개조

- Gazprom은 14년된 138k LNG선을 \$40m에 인수해, FSU(Floating Storage Unit)으로 개조해, baltic sea의 Portovaya LNG 수출 프로젝트에 사용키로
- 싱가포르 Kepeel이나 Sembwang이 개조를 담당: 9개월 소요, 2018년말 가동
- 1.5MTPA의 수출 규모로 FSU를 적용함으로써 더 빨리 수출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
- Vyborg의 일반 LNG선이 근접한 지역에 정박해 LNG를 하역해주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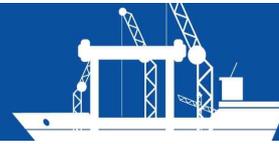
▶ 기타

▽ 러시아, Offshore 등에 로컬컨텐츠 강화

- 러시아 총리는 해외산 조선/해양 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34,750 이상 자재의 경우 수입 규제, 2018년부터 적용
- 규제는 국영, 국가 지분 50% 이상, Gazprom과 Novatek, Rogozin에 적용
- 다만 Offshore drilling Rig의 경우 적용 제외
- >> 로컬컨텐츠를 강화했던 브라질의 경우, 드릴십, FPSO는 물론이고, 탱커 조차 제대로 띄우지도 못했습니다.

△ Central Shipping → Top Ship, MR 용선: 용선료 양호

- Evangelos Pistiolis의 개인회사 Central Shipping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 중인 MR탱커를 3Q18부터 미국 Topship과 용선하기로 계약
- 용선기한은 3년 + 2년: 용선이 행사되어 5년 용선할 경우 \$27.5m 매출을 기대 가능
- 이번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23.5m 은행 대출도 확보



한국 조선업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② ▲ DSD → 현대미포조선: MR탱커 옵션행사로 2척 추가 발주

- DSD Shipping은 옵션 행사로,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2척을 추가 계약: 비나신 건조 물량
- 신조선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나신 Tier II 슬롯으로 \$32m로 추정됨
- 다만, 발주처는 Tier II가 아닌 Tier III 스펙이라고 주장
- 4척 시리즈 인도는 2019년 1척, 2020년 3척 예정
- DSD의 신조 투자는 2004년 MR탱커 노후선의 Renewal 성격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Vale 30척의 VLOC 선대 교체할 7개 선사 선정 완료

- 초기 12척의 선대 교체에서 Polaris의 노후개조선 침몰 이후, 용선발주 규모가 30척으로 크게 확대
- 그리고 최근 7곳의 용선발주 선사를 선정
- Polaris가 7척, ICBC FLOI 6척, 팬오션 4척, COSCO 4척, H-LINE, SK해운, 대한해운이 각각 2척씩 담당
- 일부 선사는 용선 옵션 계약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음: 옵션은 9월말까지 행사 예정
- 이번 발주 선박들은 12척씩 6개월 시차로 2019년말부터 인도될 예정
- Vale는 50척의 노후 개조선을 중장기 교체할 예정이며, 더해서 수출 규모도 200백만톤에서 300만톤으로 늘릴 예정이어서, 추가 용선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해운사들과 짝을 이룰 조선사는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다수 조선사들로 전함: Yangzijiang SB, Bohai SB, Qingdao Beihai SB 등

△ 한편 Polaris의 Stellar 시리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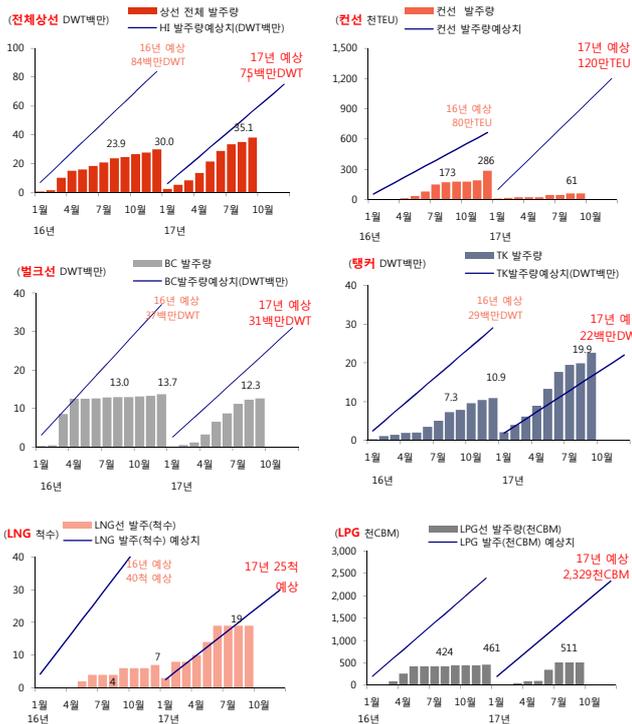
- 18척의 Polaris 개조선 중 5척이 2020년 이전에 리뉴얼될 예정이고, 나머지 12척도 2020년~2021년 교체될 예정
- 따라서 Dry-docking에서 BWTS 장착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함

▲ DSD → 현대미포조선: MR탱커 옵션행사로 2척 추가 발주

- DSD Shipping은 옵션 행사로, 현대미포조선에 MR탱커 2척을 추가 계약: 비나신 건조 물량
- 신조선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나신 Tier II 슬롯으로 \$32m로 추정됨
- 다만, 발주처는 Tier II가 아닌 Tier III 스펙이라고 주장
- 4척 시리즈 인도는 2019년 1척, 2020년 3척 예정
- DSD의 신조 투자는 2004년 MR탱커 노후선의 Renewal 성격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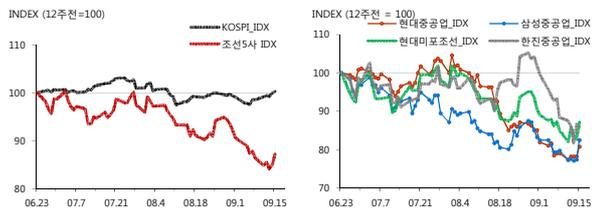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08월3주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8.15	중국	SITC	CONT	1k TEU	2018~2019	4
		17.5.1	중국	SITC	CONT	1k TEU	2018	2
일본	I-S Shipyard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9	1
17년08월4주								
민영	Jiangsu New YZJ	17.7.24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8.25	유럽	SOCATRA	PTK	8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7.21	중국	Shun Yuan Group	OTHERS	7k DWT	2018	1
	Hin Lee Shipyard	17.3.1	아프리카	Kenya Ports Auth.	OFF-기타	4k HP	2018	1
		17.2.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4k HP	2017~2018	4
	Fujian Southeast SB	17.1.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4k HP	2018	2
Aulong SB Co	17.8.18	중국	Fujian Anda Shpgg	BULK	21k DWT	2019	1	
일본	JMU Ariake Shipyard	17.8.2	중국	Zhuhai Ferry	FERRY	208k DWT	2020	1
	Oshima Shipbuilding	17.7.1	일본	Mitsubishi Ore Tpt	BULK	85k DWT	2019	2
17년08월5주								
BIG6	Hyundai Mipo	17.8.25	중동	Bahri Dry Bulk	BULK	80k DWT	2020	4
	Samsung HI	17.8.31	러시아/CIS	Sovcomflot JSC	TK	42k DWT	2019	1
		17.8.25	북미	Teekay Shuttle	TK	158k DWT	2019~2020	2
17년09월1주								
BIG6	Daewoo (DSME)	17.9.4	한국	HMM	TK	300k DWT	2019	5
	COSCO Zhoushan	17.9.5	유럽	Aegean Shipping Mngt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9.4	유럽	Erik Thun AB	PTK	18k DWT	2020	1
	Jiangsu Hantong HI	17.7.31	Unknown	Atlantica Shipping	BULK	82k DWT	2019	1
	Fujian Mawei SB	17.9.5	중국	CNAF Haixin Shipping	PTK	15k DWT	2019	1
	COSCO Dalian SY	17.6.1	중국	Qiming Electric Powe	해양설치	0k LOA	2018	1
17년09월2주								
BIG6	Hyundai Vinashin	17.7.28	유럽	DSD Shipping A/S	PTK	50k DWT	2020	2
	Fujian Mawei SB	17.9.8	중국	Fuchuan Investment	OTHERS		2019	1
민영	GST Nansha	17.7.24	유럽	TORM A/S	PTK	50k DWT	2019	4
		17.3.31	아시아	Formosa Plastics Co	PTK	50k DWT	2019	3
		17.3.24	중국	CCSC Leasing	PTK	76k DWT	2018~20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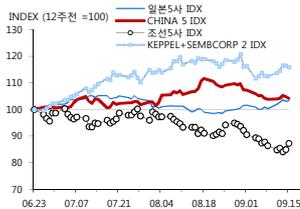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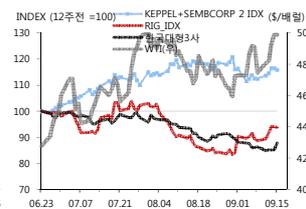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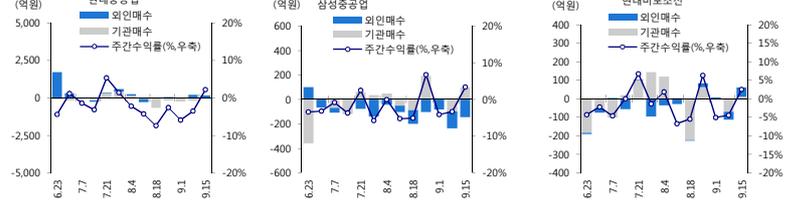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8월 조선업 취업자 감소율 22.4%...5개월 연속 20%대

<http://nr.ii/9pcZp>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율이 지난달에 22.4%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20%대의 감소세를 이어감

▷ 조선사들 순환휴직 협의 현황

<http://nr.ii/EiBVI>

현대중공업은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를 제외한 5주 동안 조선사업 부문 인력 600여 명이 순차적으로 휴직에 돌입 조선부문을 시작으로 해양-플랜트 부문으로 확대될 예정: 엔진부문은 이미 휴직에 들어간 상황
휴직은 1인당 5주씩, 7차례에 걸쳐 내년 5월까지 진행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올 1월부터 사무직 근로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급여 10%를 반납하고 순환 무급 휴직을 실시
: 생산직 근로자 6000여 명 역시 급여 10% 반납과 특근 제한 조치를 적용
삼성중공업 역시 휴직 실시 협의를 진행 중

△ 日조선업계 '짜릿기 중단'...'몽친다더니 등 돌리고 각자도생'

<http://nr.ii/qXhI>

세계금융위기 뒤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서로 몽치려던 일본 조선업체들이 각자도생으로 방향을 틀면서 강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
1) 일본 2위 조선업체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 미시마 신지 사장은 "통합을 호소해도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고 신문에 밝힘
JMU는 히타치조선, IHI 등 4개사의 조선 부문이 통합해 출범
2) 호화여객선 사업이 지연되며 2천500억엔(약 2조6천억원) 손실을 예상한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8월 일본 1위 이마바리조선 등 조선 전업 3사와 제휴협의 사실을 발표하며 재편설에 불을 지핀
: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가을 조선전업 3사와의 첫 대면에서 나가사키조선소에서 분리해 설립하는 새로운 회사에 출자하면 좋겠다고 제안
이마바리조선 등 전업3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조정작업을 진전시켰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올해 들어 원인도 밝치지 않은 채 돌연 흐지부지
3) 1개월 뒤에는 가와사키중공업도 조선사업 존폐를 포함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공개
이에 호응해 미쓰비시조선은 가와사키중공업에 조선사업을 통합하자고 제안
그러나, 가와사키중공업에 사업통합을 의뢰한 미쓰비시조선은 울퉁 JMU에도 추파를 던졌지만, 통합 회사의 회사명에 '미쓰비'의 이름을 남기기를 고집해, 상담은 정체
4) JMU는 일본 내 조선소 7곳에서 부품 공유화 등에 의한 비용삭감을 시도: 가와사키중공업은 중국의 조선소를 확장기로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중, 11일부터 5주간 조선사업부문 순환 휴직 돌입

<http://nr.ii/ASE0M>

현대중공업이 11일부터 5주간 조선사업부문 인력을 대상으로 순환 휴직을 진행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조선사업부문 인력 600여명은 순차적으로 휴직에 돌입할 계획: 휴업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하반기 유휴인력이 5000여명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본부별 수주 물량 차이에 따라 사업장별로 휴업 또는 휴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이번 휴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순환휴직 및 휴업을 실시한다는 계획

▷ '일감부족' 현대미포조선 노사 유급휴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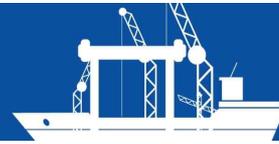
<http://nr.ii/oxYdQ>

관계자는 "노조 측도 일감부족에 따른 경영악화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상태"라고 11일 밝힘
유급휴직과 관련 임금보전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노조 측과 사실상 합의된 상태: 시행기간 부분에서만 막판 조율 중
빠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일부 생산직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유급휴직에 돌입할 계획
현대미포조선은 2015년 77척의 선박을 건조했으나 지난해 64척에 이어 올해에는 41척까지 줄

▷ '일감 부족' 현대삼호중공업 생산직 유급휴직...임금 70% 보전

<http://nr.ii/OZlbb>

11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노사는 일감 부족에 따른 부작용 완화,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 생산직 유급휴직 시행에 합의
예년보다 30% 이상 줄어든 일감으로 생기는 유휴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
생산직 2천680여명은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6월 24일까지 인당 5주씩 유급휴직에 돌입
차수에 300~400명씩 모두 7차례 걸쳐 시행되면 직원들은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보전



▽ 현대중공업의 '물리 시험'...노조 "쉬운 해고 목적"

<http://nr.ii/AVHA4>

회사는 대상자 350여 명을 지정하고 5주간 교육을 마친 뒤 필기시험을 치루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재교육 등 인사조치 하겠다고 공지
교육 기간에는 대부분 기본급만 지급받는데 금전적인 압박과 함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것

▷ 현대중 주주사 체제 마무리 수순...재원은 '신디론+배당금'

<http://nr.ii/V8dpa>

현대중공업그룹은 올 들어 현대중공업 인적분할(4월)과 현물출자 방식의 증자(8월)를 통해 주주사 체제로 전환

① 현대미포는 지난달 보유 중인 현대일렉트릭 지분 7.98%(29만5,978주)와 현대건설기계 지분 7.98%(28만5,921주)를 현대로보틱스에 블록딜 처분: 총 1932억 원 규모

② 이달 들어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이 유상증자를 발표: 두 계열사는 각각 3,400억 원, 2,700억 원을 확보해 현대중공업의 해외 법인 인수 및 시설투자에 사용

③ 주주사 현대로보틱스는 계열사 지분 매입을 감당한 동시에 이번 유상증자에서도 대주주로서 2000억 원 이상(보유 지분 기준)을 투입해야 함

1) 현대오일뱅크는 올 들어 7년 만에 중간 배당을 단행: 총 2941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최대주주(지분율 91.1%) 현대로보틱스에 2700억원 현금 유입

2) 근래 들어 국내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대규모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

: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 2500억 원 안팎

2분기 말 기준 현대로보틱스의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81%에 불과

부채총계에서 차지하는 단기금융부채(1조 4302억 원)의 비중이 높지만 독자적인 재무건전성은 준수한 편

다만 배당금 수익이 아닌 외부 차입은 중장기적으로 배제해야 할 선택지로 분석된다. 주주사의 경우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

④ 이제 현대중공업그룹은 주주사 전환 과정에서 마지막 한 고비를 넘겨줌

: '현대중공업(지분율 80.5%)→현대삼호중공업(42.3%)→현대미포조선(8%)→현대중공업'로 이어지는 남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야 함

▶ 삼성중공업 보도

△ 해양시추사 시드릴 파산보호신청...국내조선사 "영향 없을 것"

<http://nr.ii/aSiQb>

시드릴은 채권단과 구조조정안을 합의한 뒤 미국 텍사스주 빅토리아의 연방법원에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 절차

선순위 채권자들이 만기가 임박한 57억 \$의 회사채 상환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만기까지 분할 상환을 받지 않는 데 동의

채권자들은 함께 시드릴에 10억 \$를 신규 출자: 출자는 8억6천만 \$의 담보부 약속어음과 2억 \$의 주식

시드릴은 채권자들의 40% 이상,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은행들의 97%가 신규 출자안을 지지

회사 측은 후순위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모두 23억 \$의 무담보 채권이 이 회사의 15% 주식 지분으로 전환

한국 조선사들도 시드릴이 발주한 드릴십을 현재 건조 중인데, ...

... "파산보호 신청이 계약에 지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회생 절차에 속도가 붙으면 대금을 받는 것이 수월해진다"고 설명

삼성중공업의 경우 2013년 7월 시드릴로부터 10억4천만\$에 수주한 드릴십 2척을 이미 완성한 상태

삼성중공업은 선수금으로 1척당 선박 건조대금의 30%씩을 받았고, 인도 연장과 함께 선수금을 추가로 더 받는 방안을 시드릴과 협상

대우조선 관계자는 "시드릴의 챕터11 진행과 관계없이 해당 프로젝트 건조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선수금을 약 20% 가량 받은 상태"라고 전함

오히려 신규출자(약 10억\$), 은행차입금 상환연기(57억\$), 채권 출자전환(23억\$) 등을 통해 시드릴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면 드릴십 인수 여력이 커진다면 긍정적 소식

챕터11은 기업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원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도한 채무 상황에 놓인 회사를 회생시키는 조항

▲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합작사 설립...북극 서틀 유조선 건조

<http://nr.ii/h13aU>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국영극동조선소(FESRC) 산하 즈베즈다 조선소(Zvezda Shipbuilding Complex)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

합작사는 4만2000만톤 에서 12만 톤급 유조선을 건조하는 것으로, 건조된 유조선은 북극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운송하는데 사용

러시아 정부는 북극 원유 개발/운송 정책 하에, 러시아국영극동조선소(FESRC, Far Eastern Shipbuilding & Ship Repair Center) 산하 즈베즈다 조선소 시설확충 사업을 진행

즈베즈다 조선소는 해양 플랫폼과 해빙선 등 특수선과 해빙대 선박을 건조하는 곳으로 특히 북극 서틀 유조선 설계와 구성에 다양한 경험 보유

>>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즈베즈다와 합작사 설립 예정이었습니디.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로 그 키가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 삼성중공업 LNG선, 납품지연으로 건조 난항

<http://nr.ii/Mosef>

지난 2015년 1월 SK해운이 발주한 것으로 각각 'SK 세레니티(SK Serenity)'호와 'SK 스피카(SK Spica)'호

계약상으로 'SK 세레니티'호는 지난 8월에, 'SK 스피카'호는 이달 중 인도될 예정이나 이들 선박은 아직까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작업이 진행 중

선박 인도가 지연되는 것은 세계 최초로 국산 화물창인 'KC-1'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공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

현재 건조하는 LNG선들은 프랑스 GTT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설계에 따라 화물창이 제작되고 있는데 GTT는 이 라이선스만으로 적당 선박가격의 5% 수준인 약 100만\$

이내 국산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며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이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

'KC-1' 화물창은 SK해운이 발주한 2척의 LNG선에 처음 적용되는데 이어 지난 4월 대한해운이 발주한 7500m³급 소형 LNG선 2척에도 적용될 계획

>> 지난주 플래쉬에서 Tradewinds 외신을 인용에 이미 기재한 내용입니다.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웰리브, 베이사이드PE에 매각완료

<http://nr.ii/DG75L>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말 자회사 웰리브의 지분 100%와 경영권을 사모펀드 베이사이드PE에 매각: 매각가격은 약 650억원 전후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초 만기가 돌아오는 1조3500억원 채무상환에 실패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

... 연기금이 주축이 된 사채권자들의 동의로 채무 만기를 뒤로 미루면서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난 바 있음

올해 들어서는 방산설계 업체 디섹(DSEC)과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자회사를 매각 완료한 데다가 이번에 웰리브 매각을 성사시키며 구조조정을 순항중

올해 자력구조조정 목표로 잡은 약 2조7700억원 중 자회사와 유동성 매각을 통해 현재까지 약 2조4000억원을 조달한 상태

▶ 중소형 조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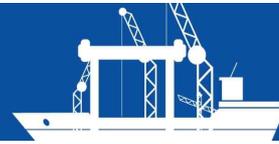
▷ 노회찬, 중형조선소 회생 정책 토론회

<http://nr.ii/FoqYd>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문재인 정부 중형조선소 회생정책 제안 토론회'를 12일 국회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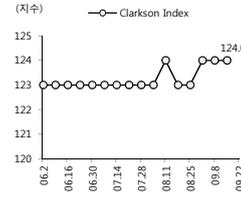
노 의원은 "최근 정부는 조선업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또다시 대기업과 대형조선소 일변도가 된다면 조선업 부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선업 회생을 위해선 중소형조선소와 조선업 노동자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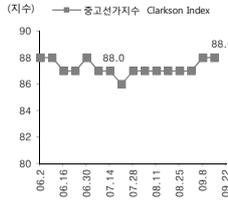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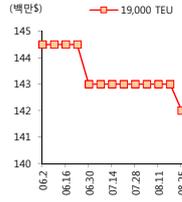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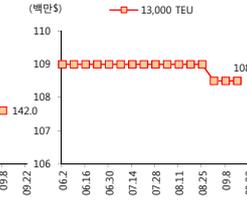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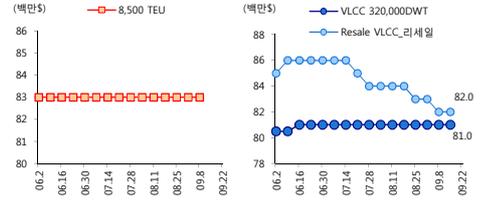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박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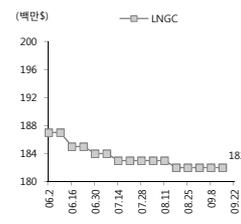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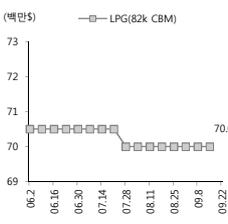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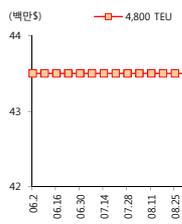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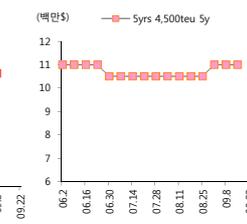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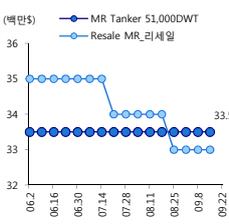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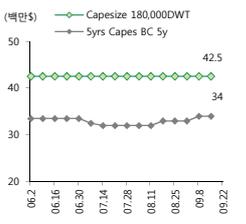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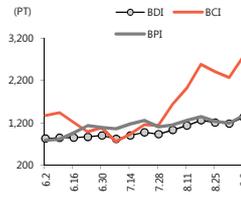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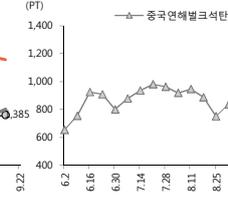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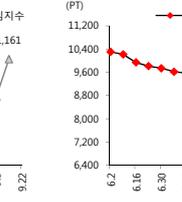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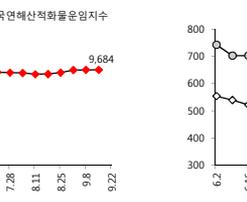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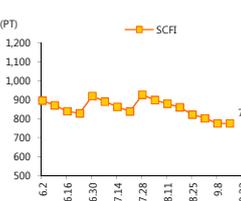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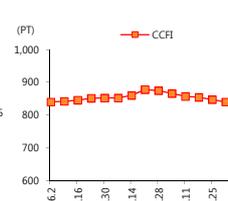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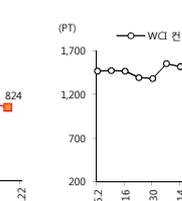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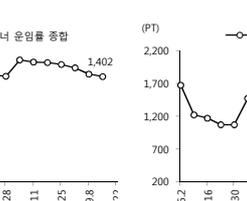
▶컨선 지표들



▶Drew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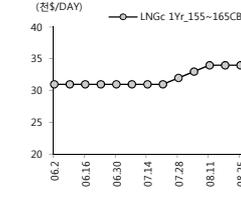


▶Peter Doeh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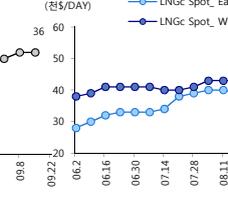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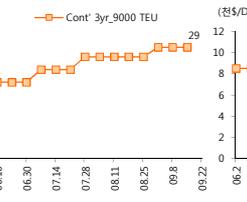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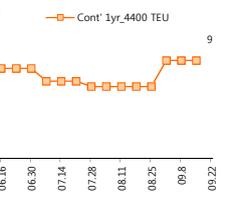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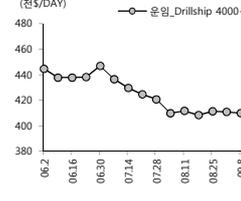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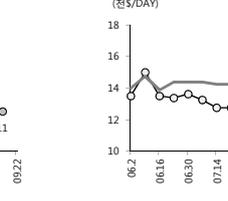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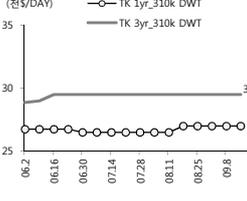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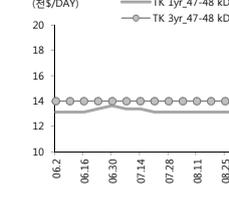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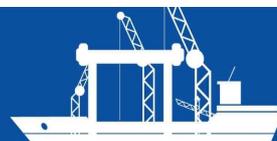


▶탱커 - VLCC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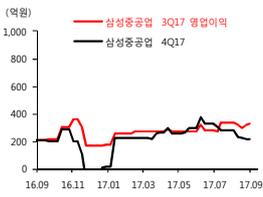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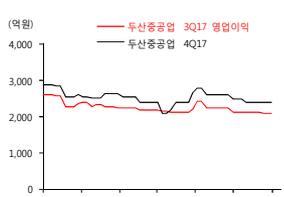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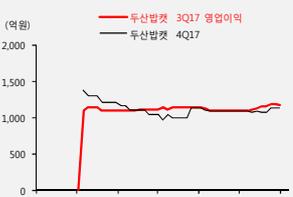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밥캣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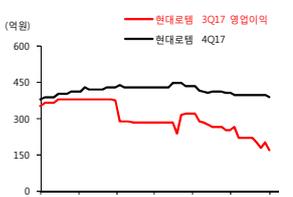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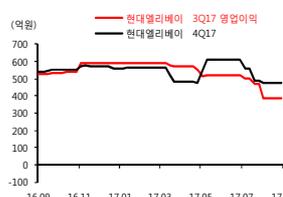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19	17.08.26	17.09.02	17.09.09	17.09.15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추가
조선	현대중공업	10,603	13,362	5,797	6,100	5,985	12,065	15,393	19,290	25,579	319%	327%	5.5	141,000
	삼성중공업	257	307	298	274	270	276	275	285	284	4%	5%	37.3	10,600
	현대미포조선	4,498	3,914	4,232	6,383	9,201	9,468	9,533	9,759	9,729	52%	6%	10.0	97,200
	한진중공업	233	14	-211	-103	-289	-289	-411	-418	-385	적지	적지	-10.3	3,960
두산	두산중공업	1,716	1,490	1,511	1,411	1,023	840	689	689	689	-51%	-33%	25.0	17,250
	두산인프라코어	753	796	798	829	878	878	889	890	888	7%	1%	9.4	8,320
	두산엔진	265	148	178	193	174	174	177	177	177	-8%	2%	23.0	4,07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7,395	29,191	31,298	31,298	30,744	30,769	30,769			11.7	360,000
	현대일렉트릭	0	0	27,046	27,560	27,300	27,300	26,997	26,424	26,424			9.3	246,500
	LS산전	3,458	3,596	3,664	3,674	3,862	3,862	3,900	3,900	3,900	6%	1%	15.0	58,600
	현대엘리베이터	5,556	5,580	5,325	5,326	4,569	4,569	4,420	4,420	4,420	-17%	-3%	11.7	51,700
방산	현대로템	756	718	650	614	523	502	484	465	469	-24%	-10%	38.2	17,300
	한국항공우주	2,622	2,520	2,503	2,422	1,671	1,625	1,625	1,625	1,553	-36%	-7%	30.5	47,350
	한화테크윈	2,380	2,270	2,255	2,140	1,963	1,917	1,858	1,807	1,793	-16%	-9%	21.0	37,600
피팅	LIG넥스원	3,845	3,774	3,733	3,619	4,651	4,651	4,651	4,651	4,664	29%	0%	16.1	75,000
	성광벤드	49	-27	-83	-75	-100	-100	-92	-148	-148	적지	적지	-61.9	9,17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49.6	9,360
	하이록코리아	1,895	1,913	1,909	1,896	1,874	1,837	1,869	1,869	1,873	-1%	0%	11.1	20,800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19	17.08.26	17.09.02	17.09.09	17.09.15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29,672	310,679	212,155	207,239	205,482	211,387	211,417	212,707	218,598	12%	1%	0.6	
	삼성중공업	17,336	18,160	18,763	18,776	18,711	18,717	18,717	18,724	18,723	2%	1%	0.6	
	현대미포조선	108,036	113,387	112,406	116,105	119,596	119,203	120,952	121,335	122,063	8%	2%	0.8	
	한진중공업	10,803	10,278	8,796	8,833	8,616	8,616	8,616	8,679	8,656	-4%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023	31,062	31,005	30,765	30,126	30,089	30,062	30,062	30,062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481	10,478	10,514	10,622	10,616	10,616	11,047	11,050	10,987	8%	9%	0.8	
	두산엔진	7,640	7,833	7,877	7,920	7,956	7,956	7,921	7,921	7,921	2%	2%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31,368	231,665	232,512	232,512	231,895	267,853	267,853	11%	13%	1.3	
	현대일렉트릭	0	0	232,450	232,450	225,780	225,780	225,780	243,098	243,098	11%	13%	1.0	
	LS산전	38,912	39,174	39,138	38,938	39,086	39,086	39,113	39,113	39,113	10%	11%	0.0	
	현대엘리베이터	41,713	38,291	37,757	37,757	35,026	35,026	35,026	35,026	35,026	13%	13%	1.5	
방산	현대로템	17,125	17,174	17,079	17,042	16,964	16,938	16,882	16,860	16,854	3%	5%	1.1	
	한국항공우주	16,591	16,330	16,307	16,195	15,419	15,370	15,370	15,370	15,370	10%	15%	3.1	
	한화테크윈	48,393	45,533	45,802	45,502	45,245	45,192	45,013	45,013	45,013	4%	5%	0.8	
피팅	LIG넥스원	31,343	31,499	31,402	31,296	32,210	32,210	32,210	32,210	32,229	14%	13%	2.3	
	성광벤드	16,528	16,529	16,554	16,540	16,524	16,538	16,564	16,479	16,479	-1%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983	24,035	24,001	23,849	23,849	23,849	23,800	23,800	23,800	8%	7%	0.9	

출처: Dataguide



이 주의 차트

▶ Komatsu 8월 굴삭기 가동시간: 북미 양호, 중국 역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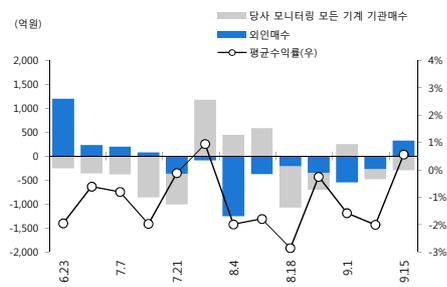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 당사 관할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탈원전 & ESS

▽ 브레이크 풀린 ESS: 과도한 ESS 쏠림 현상 경계

<http://nr.ii/IOTMw>

ESS(전력저장장치)가 파격적인 정책지원을 등에 업고 내수시장에서 단숨에 몸집을 불리고 있음
단위사업당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수십MW급 프로젝트가 우후죽순 착수되고 있고, 보급량은 매년 갑절 수준으로 증가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89MWh였던 누적설치량은 2015년 239MWh, 지난해는 490MWh로 증가했고,
여기에 올 한 해만 약 400MWh가 추가 설치돼 연말 누적설치량은 890MWh에 이를 전망
박근혜 정부가 ESS를 에너지신산업의 하나로 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낸 지 3년여만에 보급량이 10배 폭증한 셈
국내 ESS보급은 양이나 규모면에서 곧 미국 대륙까지 추월할 기세
: 재생에너지 민간단체인 SEPA(Smart Electric Power Alliance)가 이달 발간한 '2017 상용 에너지저장시장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
... 작년 한 해 미국내 ESS추가설치량과 누적보급량은 각각 257MWh, 661MWh로 한국과 규모면에서 별 차이가 없음
한국 ESS 시장 급성장은 정부가 각종 정책지원을 통해 'ESS 띄우기'에 나선 영향이 큼
앞서 산업부는 ESS를 위한 별도 특례 전기요금제를 만들어 가뜰이나 저렴한 경부하 요금의 50%수준에서 ESS충전이 가능토록 했고,
태양광설비와 연계 설치하는 설비에 최고 REC(신재생공급인증서, 5.0) 가중치를 인정해 전국적인 'PV+ESS 설치붐'을 일으킴
피크부하 저감용 ESS가 전력 충전 시 사용하는 경부하 전력을 생산원가보다 저렴한 공급으로 불필요한 전기화(電氣化)와 남용을 초래해 ...
...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제도 정상화를 요구받고 있고 산업부 역시 전기료 체제개편 시 개선을 검토
대기업들이 손쉽게 융통가능한 각종 정책자금이나 시장 유동자금으로 수십MW규모 ESS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어,
이 추세가 지속되면 훗날 ESS충전을 위해 심야시간대 LNG발전소를 돌려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

△ 일렉트릭, 조달자금 2863억 어디에 쓰나

<http://nr.ii/biivB>

세부적으로 △생산능력 확충 2000억 원 △R&D 경쟁력 강화 500억 원 △불가리아법인(Hyundai Heavy Industries Bulgaria) 지분 인수 363억 원
중설 투자는 변압기, 차단기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
내년 상반기까지 변압기 스마트공장 구축·생산 공정 합리화에 1100억 원을 투입
같은 기간 700억 원을 들여 중저압차단기 공장도 신설
운영 시스템 개선, 정보 인프라 고도화에도 200억 원을 투자

△ LS산전, 日 460억 규모 태양광발전 사업 수주

<http://nr.ii/dxawW>

일본 혼슈(本州) 이시카와현(石川県)에 구축되는 18MW(메가와트)급 '하나미즈키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 사업자로 선정
사업 규모는 45억5000만엔(약 460억원)
일본에서 3번째로 수주한 대형 태양광발전 사업
지난 2013년에는 이바라키현 미토 뉴타운의 메가솔라 파크 발전소를 수주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홋카이도 치토세의 3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

△ 현대중공업, 전기기계사업 '아이디얼전기' 美 업체에 매각

<http://nr.ii/CZpHi>

현대중공업이 10년 전 인수했던 미국의 전기기계 업체를 미국 기업에 매각
현대중공업 산하 '현대 아이디얼 전기'는 미국 텍사스의 전동기 생산업체 걸프 일렉트로웍 계열 비상장사에 완전히 인수됐다고 13일 밝혔
아이디얼은 1903년 설립돼 114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전동기와 발전기, 개폐장치, 조정 시스템 제조회사



건설기계

△ 美재무장관 세계개혁 발언 영향...3대지수 사상최고 경신

<http://nr.ii/n6feP>

므누신 장관은 CNBC가 주최한 '딜리버링 알파'(Delivering Alpha) 컨퍼런스에서 세계개혁안 소급에 대해 "여전히 검토 중이며 미국 경제에 큰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 연말까지 세계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함
므누신 장관은 법인세를 15%로 낮추는 것이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지만 경쟁성 있는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출 필요는 있다고 주장

▷ 포스코, 현대건설기계 지분 전량 매각: 233억원

<http://nr.ii/1SaiZ>

포스코는 13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기계 6만9653주(지분율 1.94%)를 모두 매각 : 할인율은 전날 종가(34만3000원)의 2.5%

큰 기계들

▷ 두산, 분당 사옥에 2개 주력 계열사 추가 입주

<http://nr.ii/GeXCh>

두산그룹은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m²)에 올해 3월 착공한 '두산분당센터'에 모회사인 (주)두산을 비롯해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밥캣, 한컴 등 5개 회사의 본사 외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도 2020년까지 분당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앞서 두산은 2015년 병원 용지였던 해당 터를 성남시가 업무 용지로 바꿔주면 2020년까지 두산의 5개 계열사 본사를 입주시키기로협약한 바 애초 계획보다 2개사를 추가해 모두 7개 주력 계열사가 입주하기로 결정 최근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일즈 앤드 리스백'(매각 뒤 임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 "용도 변경 허용 조건을 깨고 시세 차익만 챙기려 한다면 병원 용지로 원상회복시키고 건축허가도 취소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

▽ 포스코에너지, 포스파워 착공지연 아쉽네

<http://nr.ii/Z4p0b>

포스코에너지가 2014년 인수한 삼척 화력발전소(포스파워) 올해 초 시공사(두산중공업-포스코건설) 선정, 투자자 유치, 주민 동의 확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화력발전소 공사는 아직 답보 상태 지난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3호 업무 지시'를 통해 탈원전-석탄 정책 지침을 내린 것이 적잖은 영향을 끼침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29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 인-허가 시점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기사회생` 현대엘리베이터, 5년만에 공모채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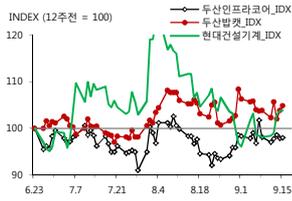
<http://nr.ii/1J5ve>

2014년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던 현대엘리베이터가 5년 만에 공모채 발행에 성공 지난 8일 신용등급이 A-인 현대엘리베이터가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모집액 이상의 주문이 집계 1984년 설립된 현대엘리베이터는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 1위 사업자로 6월 말 기준 점유율 43.1%를 차지 2014년에는 계열사인 현대상선 부채비율이 1000%를 웃돌면서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로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로 떨어지기도 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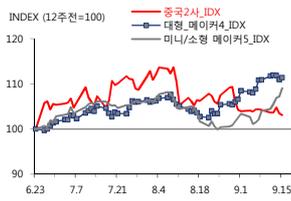


건설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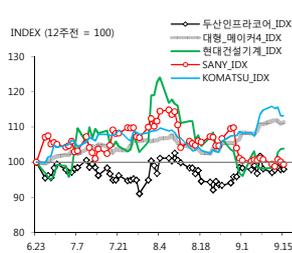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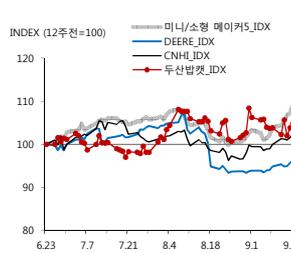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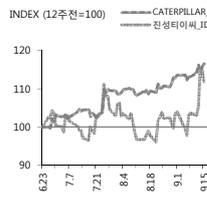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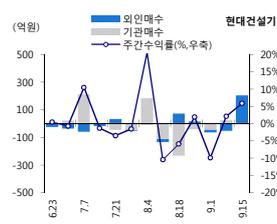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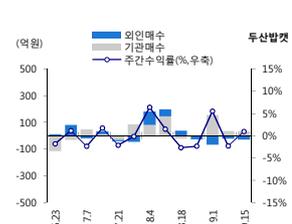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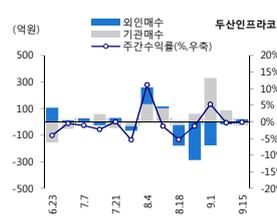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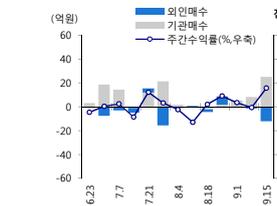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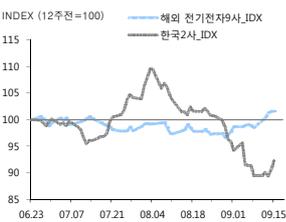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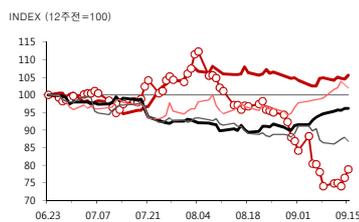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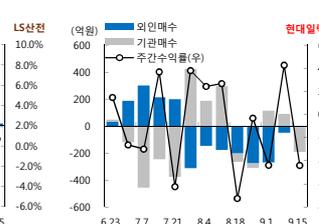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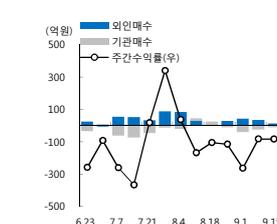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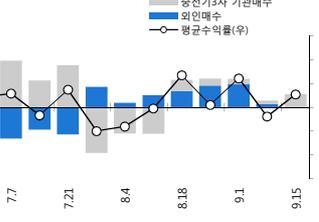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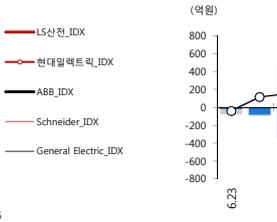


▶ 한국 동력부품5사



중전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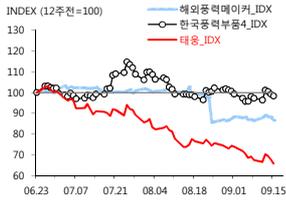
▶ 동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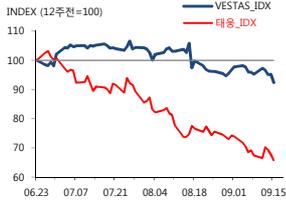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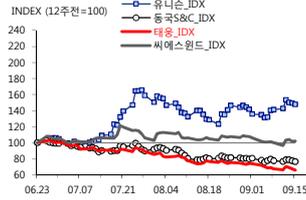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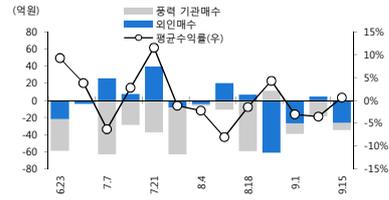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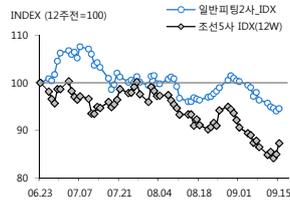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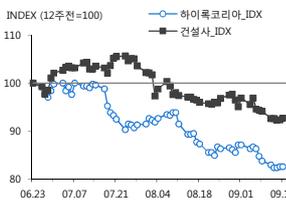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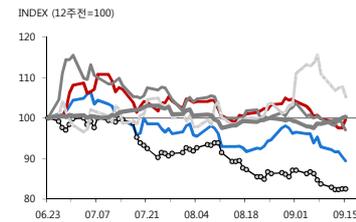


피팅

▶ 피팅 VS 전방1 건설



▶ 피팅 및 밸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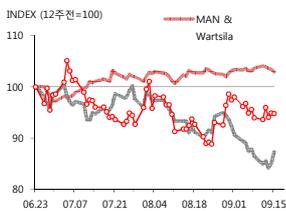


피팅업 수급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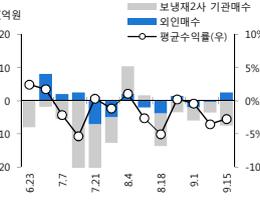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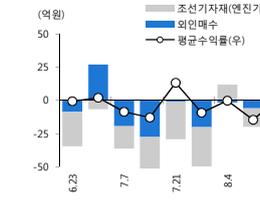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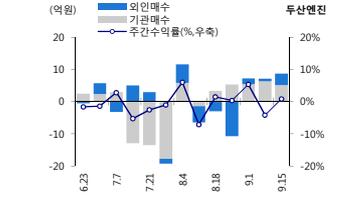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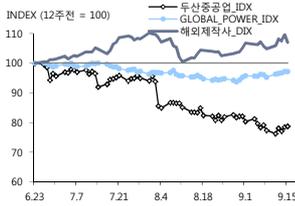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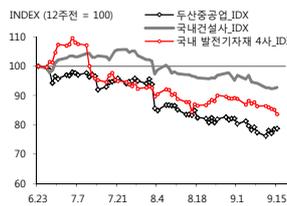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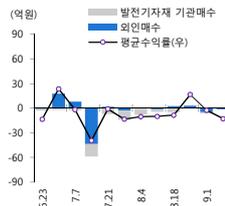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및 발전기자재**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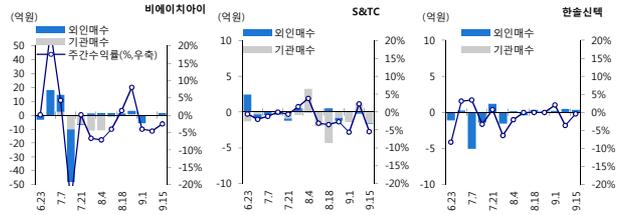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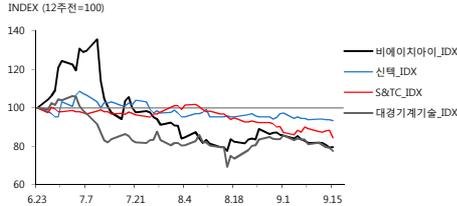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주식) 비에이지아이, S&TC, 한술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립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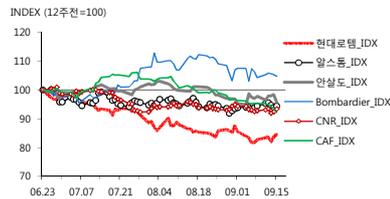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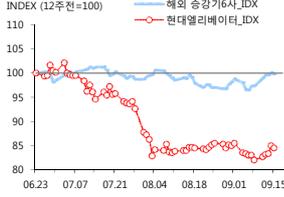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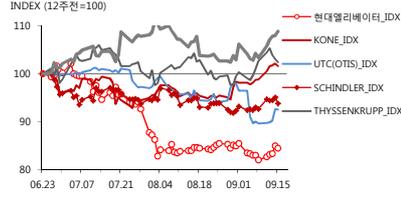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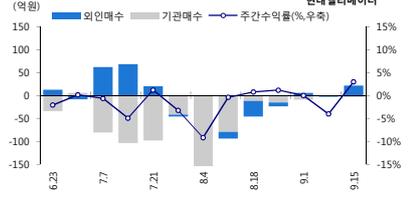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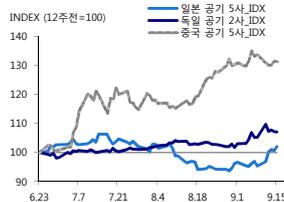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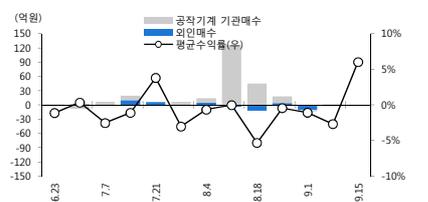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에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명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건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록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자의건 비율(%)	89.2%	10.8%	-